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9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147:1-7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50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47번 다함께
공 동 기 도 (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 자신의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저희 눈을 밝혀 알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고 허무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누가복음 14:25-33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봉헌(offering) 5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 offering) 519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전화나 카톡을 통해 안부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2.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나 면역성이 약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도제목>

- 교회들이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도록
- 대선 및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환경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말씀묵상> 누가복음 14:25-33

25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 만일 못할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찌니라 33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 예수님께서서는 가족과 자신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26절) 왜 이런 말씀을 주셨으며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었습니까? 또한 이 말씀에 근거해볼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2.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27절) 나에게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과 동기가 항상 있습니까?
3.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28-32절) 나에게 아직까지 이것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니까 아니면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 더 힘들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옛 자아의 요소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시다. 거기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